목장 교재

2018년 8월 12일(주일)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요한복음 1:35-42

인생에 있어 결혼은 참으로 중요한 만남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부부는 이 세상에서의 만남이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영원한 만남을 판가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처음 제자가 된 사람들은 원래 침례요한의 제자였는데 자기 스승의 소개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35-36)

우리는 ‘어린양’ 이라는 단어에 대해 잘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단어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들은 유월절마다 자신의 죄를 위해 양을 잡았기 때문에 ‘어린양’은 자신들의 죄를 해결해 주는 대상, 즉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 침례요한의 두 제자, 즉 안드레와 사도요한은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요 1:38)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는지, 그 동기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소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얼핏 보면, 동문서답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기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을 알려 주시면 찾아가서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올 때,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들은 밤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분이 진정 메시야이며, 자신을 구원할 구세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날이 밝자 마자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야를 만났다 하고 (메시야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요 1:41)

“우리가 메시야를 만났다”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 감격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그 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전도할까요?
전도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감격,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설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어렵게 하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설교는 들려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리는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7-18 세기로 가면서 교회 강단의 설교가 학구적이고 신학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설교가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의 영성이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고, ‘이게 아니다!’ 라고 들고 나온 사람이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였습니다.

웨슬리는 광부들에게 설교할 때는 그들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용어들로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광부들이 이제는 설교가 들린다고 말하며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안드레가 증거한 말이 무엇입니까?
"와보라"
얼마나 쉽습니까? 진짜를 소개할 때는 장황한 설명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단지, 와서 보라는 짧은 한 마디 말로 그 가치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진정으로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인간은 정체불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당신이 누구입니까?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십시오.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흑암의 자화상은 버리고, 이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격과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베드로와 같이 말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 1:42)

시몬이란 뜻은 '갈대'란 말이고, 게바란 말은 '반석'을 뜻합니다.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새로운 자화상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을 기반으로, 그는 위대한 신앙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6-18)

이 위대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서게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름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게 됩니다.
간사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의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제대로만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적 이름은 바뀌지 않지만, 영적인 정체성, 즉 영적인 새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별 볼일 없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전 1:27-28)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없는 사람, 천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그 분의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전의 종교' 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람은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이전까지 살아온 인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른 장황한 설명없이 그저 '와 보라'는 짧은 말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 누군가에게 소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문장으로 짧게 소개해 봅시다.
2.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된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해 봅시다.
3.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결단하거나 다짐하게 된 것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